

『지식인과 사회』 서평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모든 시대는 신에 직결돼 있다.” 역사에서 모든 시대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가 했던 말이다. 하지만 18세기는 다른 세기와 달리 유일하게 역사학 뿐 아니라 철학과 문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국제 18세기학회”가 있어서 세계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특별한 세기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한국 18세기 학회”가 있어서 『위대한 백년 18세기: 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태학사, 2007),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태학사, 2007), 『18세기의 맛』(문학동네, 2016) 등의 책을 출간했다.

18세기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고, 역사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대분기(the great divergence)¹⁾가 일어났던 시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양 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서도 18세기는 역사의 전성기다. 이때 청의 건륭제는 중국의 거의 모든 위대한 책들을 4 가지로 분류하여 『사고전서』를 편찬함으로써 만한융합체제를 완성했다. 조선은 영·정조와 실학의 시대로 ‘조선중화’라 불릴만한 중화사상의 전유와 변용 그리고 문예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다.

18세기는 사상과 담론이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인 근대의 표상이 되는 시기다. 독일의 역사가 라인하르트 코젤렉(R. Koselleck)은 이런 시대적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안장 시대(Sattelzeit)’라는 신조어(新造語)를 고안하여 역사, 진보, 혁명, 사회주의 등의 운동 개념들이 등장해서 언어가 역사를 태우고 가는 근대 특유의 현상을 연구하는 개념사(Begriffsgeschichte)라는 새로운 역사학 모델을 창안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우리 당대인 현대의 기원을 이루는 세계사적 사건이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산업혁명이다. 정치와 사회에서 구체제를 종결시키는 혁명을 촉발시킨 지적 담론을 총칭하는 용어가 계몽운동이다. “계몽운동이란 18세기 서유럽의 사상가들이 주도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의 총체이다.”²⁾ 여기서 서유럽의 사상가들의 국적은 대체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이다.

프랑스의 계몽운동은 프랑스혁명과 테러를 낳음으로써 계몽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 주는 선진국이 되었다.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의 계몽사상은 당시 후진적인 독일 상황을 반영해서 나왔다. 칸트는 자기가 사는 프로이센은 아직 ‘계몽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계몽의 시대’라도 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계몽을 사회혁명이 아닌 사고방식의 혁명을 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이 책임이 있는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1) 케네스 포메란츠, 김규태·이남희·심은경 옮김, 『대분기 :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에코리브르, 2016.

2) 이영석, 『지식인과 사회 :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아카넷, 2014, 17쪽.

그보다 한 세기 전 명예혁명을 통해 근대적 정치체제를 이룩하고, 그런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유럽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 영국이 어떻게 근대로의 이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근대는 인간 본성과 사회 형성 그리고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사유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다. 19세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토대는 한편으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의 하드웨어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사회와 개인적 삶의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했던 계몽주의자라고 불리는 지식인 집단 덕분이었다. 그런데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영국의 계몽주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후자에 대한 조명이 어두운 이유는 영국의 계몽운동은 제국의 주변부에 있었던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물들이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흄, 윌리엄 로버트슨, 애덤 퍼거슨 등이다. 대영제국의 영광으로 중심부가 빛을 발휘하면 할수록 주변부는 어두워지고 중심부에 흡수·통합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런 현상을 상징하는 것이 에든버러 대학의 위상이다.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은 18세기에는 에든버러 대학을 모범으로 해서 성장했고, 그 두 대학이 크게 성장하면 할수록 에든버러 대학은 그 밑의 그늘에 놓이게 됐다.

역사가는 보이는 나무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성장시킨 뿌리를 찾아내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의 작업으로 탄생한 책이다. 이 책은 어떻게 주변부 스코틀랜드에서 중심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는 영국 계몽운동의 에너지가 분출되어 흐를 수 있었고, 또 왜 주류가 됨과 동시에 쇠퇴해야 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묘사했다.

명화를 그린 모든 화가가 나름의 화풍을 갖고 있듯이, 훌륭한 역사가는 특유의 글 쓰는 스타일이 있다. 이영석 교수는 마치 풍경화를 그리듯이 역사를 재현하는 필체를 갖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세계는 언어로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말했듯이, 저자는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세계를 10폭의 병풍 그림을 그려내듯이 책을 썼다. 총 10장 가운데 1장과 4장까지는 밖으로 나타난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외면 풍경을 그렸다. 1장은 그 중심지인 ‘북극의 아테네’라 불렸던 에든버러의 18세기 상황에 대한 묘사다. 2장 “종교와 대학”이 계몽운동의 발상지를 그려낸 것이라면, 3장은 영국과의 합병 이후 스코틀랜드 정체성이 “정치에서 문화로” 코드 전환하는 것을 묘사한다. 4장 “중심과 주변”은 합병 이후 안과 밖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경계인적 지식인의 위상에 관한 그림이다.

나머지 5장부터 9장까지는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내면을 재현했다. 5장 “문필공화국”은 지식인들의 담론 공동체, 하버마스 식으로 표현하면 “공론장의 구조적 변동”에 관한 서술이다. 6장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는 근대적 인간성에 대한 탐구보고서다. ‘인간 본성 Human Nature’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가 아닌 통합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 인간상을 구현해내고자 했다. 7장 “사회와 역사”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구성 원리에 관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인과 사회라는 근대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벡터를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의 문제로 풀고자 했다는 점이다. 8장 “계

몽과 근대성”은 독일의 칸트와 구별되는 스코틀랜드 지식인들 특유의 계몽사상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성 중심의 계몽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종합해서 근대적 인간성을 탐구했다는 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특징이다. 9장 “계몽운동과 오리엔탈리즘”은 계몽운동의 보편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계몽운동이 서구중심주의 원죄를 갖고 있다는 비판 뿐 아니라 그 비판을 무마시킬 수 있는 변론도 읽을 수 있다. 마지막 10장 “지적 전통의 마지막 세대”는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에피고넨(Epigonen)’을 소개하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 된다.

18세기를 살았던 그들은 없다. 역사가는 그들과의 상상적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상담하려는 자세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탐구·조사하는 사람이다. 학문(學問)이란 문자 그대로의 뜻은 “배우고 묻는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18세기 그들로부터의 배움을 통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이영석 교수의 ‘탐구보고서(Historia)’를 읽고 서평자는 다음 4 가지 질문이 생각났다.

첫째, 18세기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했던 학문의 총칭을 ‘도덕 철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문제사적 맥락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도덕철학’은 학문이 여러 분과로 분화되기 이전 인간과 사회 전체를 포괄해서 탐구했던 것을 지칭한다. 스코틀랜드 계몽지식인들은 뉴턴과 베이컨의 방법을 원용해 인간과 사회에 관한 종합적 탐구로서 ‘도덕철학’을 발전시켰다. 독일 관념론은 문화와 이성 개념에 입각해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서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고 자연을 대상화하는 사유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에 반해 영국 경험론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고 인간성을 “인간 본성 human nature”로 접근하는 사유체계를 지향했다. 이런 ‘도덕 철학’의 대표저작이 데이비드 흄의 『인간 본성론 A Treatise of Human Nature』이다. 경제학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역시 사회현상 배후에 존재하는 연결 원리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도덕 철학’의 계보에서 나왔다. 그런 영국 지적 전통의 총화가 인간을 문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고 위치지운 다윈의 진화론이 아닌가 여겨진다. 인간이란 지구상의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자연선택’을 통한 변이로 발생한 ‘생명의 나무’의 결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진화의 역사가 인공지능의 발명을 통한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인공지능은 지능은 있지만 과연 도덕적일 수 있는가?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도덕과 윤리 문제도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해결을 자연과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오늘날 인문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른바 통섭의 사고를 해야 한다. 인간이 계속 인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도덕 철학’이 나와야 한다. 6번째 대멸종을 예고한다는 기후온난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도덕 철학’은 요청된다. 인문학이 그런 도덕 철학적 탐구를 할 때, 과학이 주도권을 가진 디지털 시대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이정보다는 감정을 중심으로 인간성과 근대 사회의 구성 원리를 탐구한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오늘날 정치학과 경제학에서의 ‘감성적 전환’과 연관해서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스코틀랜드 계몽지식인이 인간성(humanity)이 아니라 인간 본성(human nature)을 통해 이성보다는 감성의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자본주의 문제를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유명한 것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신과 자신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있다고 믿었다. 미국의 법 철학자이자 정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얼마 전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정치적 감정 - 정의를 위해 왜 사랑이 중요한가』(박용준 옮김, 글항아리, 2019)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원인을 감정을 도외시하고 이성애 근거해서 법과 정치의 문제를 풀고자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 거리와 광장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집단광기를 표출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오늘날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면 뭐라 할까? “스미스에게는 의무감(도덕감)이야말로 사회 형성과 존립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기 때문이다.”³⁾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이기심이라는 욕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인간 본성은 동감(sympathy)이라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의 가르침은 어느 시대에서보다 오늘날 그리고 어디에서보다 한국사회에서 배워야 할 사상이다.

셋째, 계몽주의를 오리엔탈리즘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계몽운동의 보편성을 전유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의 종(種)으로서 인간 본성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서구중심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의 혐의로부터 벗어날 알리바이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당시 인도가 스스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는 편견을 비판하면서, 현재 진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적절한 교육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도 또한 서구의 경로를 따라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다.”⁴⁾ 서발탄 역사가인 차크라바르티 역시 근대성에 대한 유럽적 사유는 “필요불가결하면서 동시에 부적합”⁵⁾하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했다. 서구 사상에서 ‘서구’는 지역적이지만, ‘사상’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다. 모든 사상은 공간에 구속되어 있지만, 주변부라는 공간적 위치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에서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만약 그렇다면 스코틀랜드 계몽지식인들은 결국 진보의 부재와 진보의 가능성이라는 동양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통해 영제국의 지배를 합리화 하는 데 기여한 오리엔탈리스트들이라는 이영석 교수의 비판은 옳지만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 역시 주로 서구 사상을 인용해서 하는 학문현실에서 이제는 그런 비판이 학문적 콤플렉스는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도 버릴 수는 없는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구 사상 그 자체가 오염됐다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사용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3) 이영석, 위의 책, 253쪽.

4) 위의 책, 357-8쪽.

5)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김택현 · 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그린비, 2014, 70쪽.

넷째, 18세기 그들의 에너지가 19세기에는 왜 고갈됐느냐이다. 주변부 지식인이 중심부의 주류로 진입하면 포섭되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인가? 이영석 교수는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듯이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을 역사화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감상을 넘어 그들에게서 영원한 경계인으로서 지식인의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망상인가? 주변부의 중심에 대한 도전의 최종 목적이 중심부에 들어가 복무하는 것인가? 중심부를 접수해서 변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1929년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이라는 변경에서 출발한 프랑스의 아날학파는 1933년 뤼시앵 페브르가 Collège de France로 초빙되는 것으로 중심부로 진입했고, 그 후 프랑스 역사학을 넘어 세계 역사학의 지형을 바꿨다. 그리고 4세대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변화를 하는 탈바꿈을 거듭했기에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 물론 영원한 것은 없다. 헤겔 말대로 시대정신의 대변자로서 영웅은 위대하지만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는 것이 운명이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자인 에드워드 W. 소자는 시대정신과 상대적인 ‘공간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⁶⁾ 시간은 지나가지만 공간은 장기지속의 구조를 형성해서 인간 정신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식인이 지배 권력에 포섭되지 않는 영원한 경계인으로서 진지함과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쾨니히스베르크에서만 살은 칸트처럼 마음은 비록 중심부를 향해 있었지만 몸은 주변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국 서양사학자들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저서를 낸 역사가가 이영석 교수일 것이다. 그런 지칠 줄 모르는 학문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수도권 대학교수가 아닌 지방 변두리의 광주대학교에서 영국사를 전공했다는 명분으로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변인이었기에 수도권 대학교수들이 이루지 못한 학문적 업적을 성취했고, 자신을 투사하는 심정으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을 조명하는 책을 썼으리라. 그런 이영석 교수는 세계의 변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역사의 최전선에서 살아야 하는 한반도 지식인의 모범이다. 끝으로 아산서평 모임이 한국사회 계몽운동을 위한 문필공화국의 살롱이 되길 기원한다.

6) 에드워드 W. 소자, 「“시대정신”에서 “공간정신”으로 - 공간적 전회에 대한 새로운 왜곡들」, 외르크 뒤링 · 트리스탄 킬만 엮음, 이기숙 옮김, 『공간적 전회』, 심산문화, 2015, 280쪽.